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로마서

창세기 22:1-12, 로마서 1:8-17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다.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안디옥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으니,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난 것이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보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다. 그 근거를 보면, 이 편지를 전달한 여집사 비비아 겐그레아 교회 출신이다. 이 겐그레아가 고린도의 항구도시다. 고린도가 서울이라 하면 겐그레아는 인천이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신기한 것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바울은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가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로마서 전반을 보면, 바울은 로마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신기할 정도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로마의 영적 상황, 동성애, 윤리적 상황, 우상의 문제,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 답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다.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가족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각 지역의 소식이 다 들려온다. 우리 가족, 성도들이 해외에 나가면, 나는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뵈고, 남편, 아내,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을 다 듣게 된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다.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는 첩자들이 있어서 그렇다. (웃음) 누가 그런 중요한 일을 했겠는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로마의 상황을 바울에게 잘 알려준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다.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다. 그 안에 있으면 선입견도 생기겠지만, 거기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걸려서 이야기해 주지 않나. 전도제자들은 포럼을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달하니까 더 정확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마서를 막상 읽어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럽다. 다시 혼돈, 공허, 흑암에 빠져든다.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이 메시지를 어떻게 유치부에서 설교하느냐 하고 고민을 하더라. 로마서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두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 로마서를 두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로마서 설교를 100편 한 목사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복음을 모르면 100편을 해도 못 깨닫는다. 결국 그분도 이상하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쉽게 이해되게 되어 있지만, 복음을 모르면 전부 이해가 안 된다. 어렵게 설교해서 이해가 되고 쉽게 설교하면 이해가 안 되는가? 어떤 성도님은 5년 만에 이제 설교가 조금 들린다고 하더라. 우리 설교가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데. (웃음) 그런데 이상승배하고 시달리다가 오신 새가족 성도님은 바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로마서가 어렵나?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위, 거기다가 예정론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로마서가 쉽다. 복음이 있으니까 쉬워진다. 성경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 그 고백을 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란다.

로마서를 읽기 전에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로마서를 읽다가 오히려 율법주의로 빠져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는데 이성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바란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영혼은 이해하게 된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었는데 영혼이 이해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 했다. 결국 말씀이 머리로도 이해되면서, 이 복음에 올 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란다.

로마서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경이다. 예컨대 어거스틴, 루터, 요

한 웨슬레가 모두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얻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우리만큼 깨달은 것도 아닌 것 같다. 정말 이 사람들이 로마서 속에서 복음을 우리만큼 이해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도 세계 종교를 개혁했다. 여러분은 대단한 것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책을 다 읽어봤지 않나. 이분들이 누리거나 깨닫지 못했다. 칼빈도 못 누렸다. 그래서 온갖 병에 시달렸다. 루터는 성찬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다. 완전 그리스도, 완전 복음이 안 되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이 결론을 가지고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란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에 대해 과정을 배우라는 말이다.

1.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겠다.

(1)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에게만 당연한 것이지만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모든 세계와 삶이 재창조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와 계곡주의 사단에 사로잡힌 로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지금 사회 문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란다. 개인, 자녀, 부부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편이다. ‘율법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이 말씀에 드러나 있다.

① 이방인들이 이상승배를 하면서 죄를 짓지만, 이상승배 안 하는 것 같은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은 틀린 번역을 보고도 바르게 깨닫고 있다. 이단들은 바른 번역을 보고도 틀리게 깨닫지 않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로마서 1:17을 바르게 보면, ‘악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어렵게 이야기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가? 쉽게 말해도 이해 못 한다. (웃음) 그래서 어렵게 말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이해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깊이, 높이, 넓이를 알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동번역은 로마서 1:17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고 번역했다. 이 부분은 공동번역이 잘 한 것 같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지게 된 사람이 의인이다.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구원의 길임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다. 그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것이다.

② 로마서 1장 후반부와 2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결국 그 상태는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의 상태였다. 그래서 로마서 3:23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로마서 5:8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문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③ 그냥 해결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하셨다. 로마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바칠 때, 그는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것은 이삭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다. 즉,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이다. 그러면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란다. 7장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모든 율법에 대해서 죽어 버렸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면 남편에 대해서 벗어나게 된다. 마음대로 시집가도 된다. 이것이 율법과의 관계다. 율법은 죽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는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도를 없애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 제도와 관계가 없게 되었다. 법적으로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원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주신 것이다. 조건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④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로마서 10:9-10이다. 로마서 9-11장의 내용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을 미워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쓴 것이다. 그 방법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10:9-10의 내용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당연성·필연성·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모델적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다. 완전 복음을 깨닫고 승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전도자의 삶이다. 이번에 전도자의 삶이 62가지가 나왔다. 바울의 신앙이 무엇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더 잘 믿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당연하게 생각한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적인 프로그가 되라. 그것이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야 한다. 훈련받아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① 로마서 12:14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대단한 상태 아닌가. 이런 영적 서밋, 삶의 서밋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이것이 일곱 램프들이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도와주어서 자기 나라도 독립하도록 도와주었다. 테러하지 않고 도와주었더니,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할 것을 다 보내주고 도와주게 되었지 않나. 로마서 12:19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20에,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 것이다.

② 로마서 13:1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비판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부모님께, 목사님께, 상관에게 순종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으도록 만들어라. 비판하고 지적하는 수준 대신. 로마서 14:13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③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양육이, 디락방이, 시간이 필요하다. 로마서 14:1에, 성숙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도 전에 그랬지 않나. 오히려 나 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상하다 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야 한다. 협력하지 말고 증인으로 서라. 로마서 15:1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 좋은 부인들은 믿음 약한 남편들을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라. 로마서 15:2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율법이 아니다.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3) 세 번째 이유는, 복음적으로 믿음에 승리한 모델적인 인물들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다.

2.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델

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델로 제시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란다. 중직자, 램프가 다 이런 인물들이 되시기 바란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1)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비비가 나온다. 세계복음화한 사도바울에게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모두 일꾼 되시기를 축원한다. 2절에는 이 비비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다.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들을 보호한 것이다.

(2)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브리스와 아굴라가 나온다. 9절에도, 동역자인 우르바노가 소개되고 있다.

(3) 6절에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온다. 팔라왕에 가면 한국에서 온 수십 명 사람들의 식사를 혼자 대접하는 분이 있다. 그렇게 많은 요리를 하면서도 또 맛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방에서 못 나오는 것이다. 이분이 하는 말이다. “목사님,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주방이에요.” 맛 없게 만들면 나올 수 있을 텐데. (웃음) 선교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모두 이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4) 7절에, 친척이요 함께 갇힌 자인 안드로니코와 유니아가 나온다.

(5) 8절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인 암블리아가 나온다. 9절에 나오는 스키타구도 마찬가지로.

(6)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가 있다.

(7) 11절에는 친척 헤로디온이 있다.

(8) 12절에는 수고한 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많이 수고한 버시가 나온다.

(9) 마지막으로 23절에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가 나온다. 여러분이 모두 이런 응답을 받으실 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가 되겠는가?

(1) 세상의 12가지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배우고 체득해야 한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현상이 너무 재미있다. 전도가 재미있다. 놀리는 것이 아니다.

(2)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성령충만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40일 집중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어야 한다. 장작이 타기 위해서는 불씨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3) 로컬(Local)과 파라(Para)의 영적 시스템에 내 인생을 올 인해야 한다. 교회의 직분에 올 인하라. 가치를 알아야 한다. 찬양대, 교회 행사, 공예배, 새벽기도, 구역, 심방, 다 로컬 시스템이다. 파라 시스템은 무엇인가? 훈련이다. 로컬이 학교라면 파라라는 학원, 과외다. 세상 과외는 다 시키면서 디락방 과외는 왜 안 시키는가. 기업 경영도 자꾸 밖에서 배워야 한다. 혼자만 있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새로운 정보를 외부에서 계속 배워서 갱신해야 한다. 신앙도 그렇다. 영적 실력을 가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디락방, 팀 사역, 미션 홈, 지교회, 집중훈련, 합송훈련, 화요집회, 새가족순회회가 바로 그런 훈련들이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던데, 또 어떤 새가족 분은 ‘우리 교회는 훈련 받을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하다’고 했다. 응답을 받아야 한다. 1년에 한 번 하는 선교대회, 산업인대회, 램프대회가 그 훈련이다. 그 현장에 가 보라. 거기에서 눈을 여는 것이다. 산업박람회 같은 곳에 가면 중소기업들이 부스를 열고 여러 가지를 전시하지 않나? 거기에 가면 사업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이 대회의 자리는 바로 영적 박람회다. 이 자리에서 영적인 눈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교회를 잘 지키고,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는 이 응답을 받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세상의 열두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을 분석하게 하시며,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